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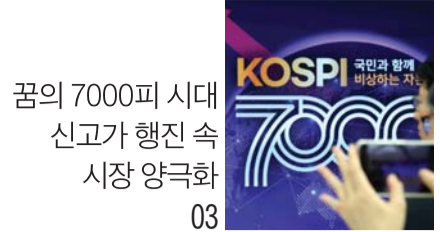


7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7490.05 (+105.49)		1199.18 (-10.99)
	금리 (연평균 3년)		환율 (원/달러)
	3.546 (-0.049)		1448.40 (-6.70)

# metro® 경제



202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5월 8일 금요일

## 물가·국채 동시 꿈틀... 전 세계 '인플레이 공포'

## 중동발 신용등급 강등 기업 '도미노 부도' 온다

올해 韓 물가전망 2.5%, 0.2%p ↑  
韓, 물가·금리 상승 '패닉' 우려에 정부 "범부처 차원 물가안정 대응"  
美 국채금리 파멸 마지노선 5% 넘고 유로존은 '스태그플레이션' 고개



계란가격 강세 지속

소비자가 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고르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6% 상승한 가운데 농축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1% 하락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닭고기(6.3%)와 계란(6.4%)은 가축전염병 여파로 공급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태국산 신선란 449만개를 수입해 공급하고 육용 종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공급량을 확보하고, 할인 지원을 병행한다. /뉴시스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을 고만할 때가 됐다”(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적 피해의 위험이 커지며,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정책 가이드라인 제공 능력을 제한한다”(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세계 경제가 중동전쟁(고유가)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발 인플레이션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금리도 꿈틀대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영국 주요 국채 금리는 과거 금융위기 수준 가까이 치솟으며 '국채 발작'을 보인다.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긴장과 재정 지출, AI 투자(올해 글로벌 빅테크 5개사 예상지출 7250억달러) 확대 등에서 나온 '구조적 압력'으로 해석한다.

7일 금융시장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4월 주요 기관 3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은 2.5%다. 3월 말 2.3%에서 한 달 새 0.2%포인트(p) 올랐다.

실제 물가도 꿈틀대기 시작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뛰었다. 2024년 7월(2.6%)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미국과 유로존도 인플레이션 공포가 고개를 들었다.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3.5% 올랐다. 물가는 금리를 자극

했다.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6일(현지시간) 연 4.35%대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4월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연 5.017%를 찍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마이클 하넷 최고투자전략가는 보고서에서 “30년물 금리 5%는 마지노선이라며, 이를 넘어설 경우 '파멸(doom)'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로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둔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4월 물가가 유럽중앙은행(ECB) 중기 목표치 2.0%를 넘어 3.0%를 기록한 반면 1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0.1%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짓지 않는 다던 개(인플레이션)가 다시 짚기 시작한 것'으로 비유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은 2013년 4월에 나온 '세계 경제 전망'에서 물가를 '짚지 않던 개(The Dog That Didn't Bark)'에 비유하면서 물가 급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세계에 촉구한 바 있다.

물가가 급등하면 '기준금리 인상→한계 차주(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연쇄 부도→성장률 하락'의 악순환이 발생해 특히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커진다. 프랑스계 투자은행(IB) 나티시스(Natixis)는 한국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지적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나티시스는 “한국 경제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뛰면 자산시장

이 패닉에 빠질수도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경영자는 지난 6일(현지시간) 연례 주주 서한에서 금리를 “거의 모든 자산 가격에 작용하는 중력”에 비유했다.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될 경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 등 대외 변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물가 안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유지할 계획”이라며 “석유류를 최우선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물가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생밀접 품목들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 노사갈등, 주주·정부까지 확대... '경영 리스크' 부상

### ◆삼성전자 초격차의 역설

#### ② '파업 예고' 파장

사측, 1분기 DS부문 10.2조 집중 2나노 전환 예약 등 '역대급 투자' 부회장 "미래 경쟁력 손실 막아야"

삼성전자 총과업을 둘러싼 갈등이 노사를 넘어 주주·정부·이사회까지 번지면서 경영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 오는 21일 총과업 예고를 2주 앞두고 사측 내부에서도 잇따라 경고 메시지가 나오

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DS부문장)과 노태문 DX부문장은 각각 사내 공지를 통해 “열린 자세로 협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미래 경쟁력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신재윤 이사회 의장도 사내 게시판을 통과업으로 인한 손실이 급진적 피해를 넘어 고객 신뢰와 공급망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촉구했다. 사외이사들도 이사회에서 파업이 기업가치와 수백만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화를 통

한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경영 리스크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역대급 투자 부담도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만 연구개발(R&D)에 11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시설투자(CAPEX)도 11조2000억원으로 이 중 91%인 10조2000억원이 DS부문에 집중됐다. HBM4E 양산 준비와 2나노 공정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미 예약돼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 재원까지 늘리기 어렵다는 게 사측 논리다.

주주단체는 노조와 사측 경영진 양측 모두를 압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7일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강행 시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측이 부당한 성과급 협약을 맺을 경우 경영진에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민경권 대표는 “삼성전자는 500만 국민 주주의 자산과 미래 연금이 담긴 국민기업”이라며 “국가경제 뇌관을 해소할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나경원 “제왕적 의회 멈추는 것이 진짜 개혁 출발점” /사진 뉴시스  
▲오세훈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시민 주거 불안 해소”

▲조국혁신당, ‘생명 골든타임 책임병원’·‘AI 보디가드’·‘디지털 F5’ 공약 발표  
▲국힘, 박성준 ‘국민 공소취소 뜻 몰라’ 발언에 “오만한 모욕” “역대급 망언”

▲국힘, 청와대 앞서 최고위 열어 ‘특검법’ 규탄... “국민 무섭지 않나”  
▲지방선거 약재 우려에...여권서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론 나와